



## ‘불교와 사회’ 포럼 창립된다

23일 역사문화기념관서 첫 세미나 개최

불교의 관점에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대규모 포럼이 설립된다. 11월 23일 ‘불교로 세상을 말하고 세상으로 불교를 말한다’는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여는 ‘불교와 사회 포럼’은 불가지성인들의 거대 토론 마당이다.

‘불교와 사회 포럼’은 이평래(한국불교학회장) 김광삼(현대불교신문 사장) 김규철(전불교방송 사장) 국민대(학원교수) 김용표(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성태용(우리는 선우 이사장) 교수 등이 ‘불교 불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대표로 참여해 결성했다. 공동대표들은 11월 1일 모임을 갖고

사회·정치·경영 주제 전체 참가자 토론에 참여

“정례포럼과 수시 포럼, 초 청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 자”고 결의했다.

또 “많은 이슈를 내세워 요란하게 떠들기 보다는 우리 시대 공통의 화두를 엄선하여 깊게 논 의하고, 거대한 목표를 세워 공 허한 주장만 내세우기 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시의 적절한 대안을 제시 하는 틀을 잃지 않을 것 이다”는 내용을 담은 창립취지 문도 확정했다.

‘불교와 사회 포럼’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별로 분 과위원회를 구성 집중적인 이슈 개발과 토론의 장을 열어 나갈 방침이다.

2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창립세미나에서는 고려대 철학과 조성택 교수가 ‘불교와 현대사 회’를,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세일 교수가 ‘불교와 정치’를, 서강대 경영대학 노부호 교수가 ‘불교와 경영’을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동국대 김중욱 교

수와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이각범 교수, 지혜경영연구소 손기원 소장 등이 나선다. 무엇보다 이 세미나는 발제자와 논평자 외에도 청중들에게도 토론의 기회를 대폭 제공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형조 교수의 사회로 80분간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성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가치 충돌을 극복하고 사회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불교적 대안이 무엇인가를 낱말이 짚을 계획이다. 조 교수는 “말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손가락은 질라버려야 한다”는 다소 강한 어조로 오늘의 불자들이 불자답게 살기 위해 고

쳐야 할 점들도 지적한다. 박세일 교수는 “오늘날 한국 정치의 두 가지의 중병(重病)에 걸려 있다고 분석한다. ‘국민의 분열과 갈등 조정’과 ‘과거와의 전쟁’이 그것. 이 두 가지 병의 치료방법은 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 박 교수는 “불교를 내세워 정치를 멀리하거나 정치를 내세워 불교를 멀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자의 병은 방일(放逸)에 있다”고 비판한다.

노부호 교수 역시 매우 현실적인 측면에서 불교와 경영의 관계를 정의한다. 인간의 생명력과 잠재력을 키워 경영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 노 교수의 논지다.

■ 회원일시...푸짐한 혜택 ‘불교와 사회 포럼’에는 불가지성인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금년 연말 이전에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개간지 ‘불교평론’ 1호부터 23호까지의 모든 내용이 수록된 CD와 1년 무료구독권을 증정한다. 02)2004-8233. 임연태 기자 yilm@buddhapia.com



11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환영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중국 불교협회 상무부회장 성후이 스님(맨 오른쪽)이 인화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 中 법문사 지골사리 한국왔다 (指骨舍利)

이운봉행위, 11일 조계사에서 환영법회

내달 3일까지 서울, 8~20일 부산서 친견 가능

세계 유일의 부처님 손가락뼈인 ‘지골사리(指骨舍利, 이하 불지사리)’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불지사리 한국이운봉행위위원회(공동위원장 홍파·혜충)와 중국불교협회 1500여명의 불지사리 이운 봉행단(단장 성후이)은 서안 법문사에 봉안돼 있던 불지사리를 11월 11일 새벽 5시 한국에 들어온 뒤 8시 50분경 조계사로 이운했다.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불지사리 환영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진신사리를 친견하면 마음에 신심이 절로 나고 또 모든 업장을 녹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 귀중한 사리를 한국에 모시는 것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우호증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중국불교협회 상무부회장 성후이(聖輝) 스님도 “1987년 법문사 지하

공에서 발견된 불지사리는 1700여 년간 중국을 지켜준 성보”라며 “1994년 태극, 2000년 대만, 2004년 홍콩에 이어 네 번째로 한국불자들을 만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2시, 울림팩 펜싱경기장 특별법당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를 비롯한 1500여 사부대중들이 동참한 가운데 ‘불지사리 친견 및 법문사 지하공 유물 한국 특별전’ 입재식을 봉행하고, 한국에서의 친견법회가 원만하게 회향되기를 발원했다.

입재식에서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불지사리 친견은 한국불교의 또 다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나보다는 남과 이웃을 위한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친견이 잘 회향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인사를 전했다.

중국 당나라 시대 국보급 유물 30여점을 함께 볼 수 있는 불지사리 친



부처님 손가락뼈사리(길이 4cm).

견은 서울(11월 11일~12월 3일)에 이어 12월 8~20일 부산 벡스코 특별법당에서 계속된다. 불지사리는 기원전 485년 부처님이 열반한 뒤 7일간 계속된 다비사에서 나온 길이 4cm의 손가락뼈 사리로, 전국시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뒤 법문사에 봉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자연 재해로 땅속에 묻혀 있다가 1987년 법문사 진신보탑의 지하공전이 발견되면서 유물 3000여점과 함께 발굴됐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 출가연령제한 ‘50세’로

조계종 중앙총회, 내년 예산 240억 승인

조계종의 출가연령제한이 50세 이하로 환원됐다.

11월 11일 속개된 제169회 조계종 정기중앙총회에서는 교육법 제 55조를 개정, 40세 이하로 제한한 행자교육원 입교자격을 50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예산 240억 7467만9000원을 승인했다.

2002년 제154회 임시중앙총회에서 ‘일부 고령 출가자들이 수행공포를 어지럽히는 등 대중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출가연령을 5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낮춘이후 그동안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출원, 선원 관계자들의 출가연령제한 재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소청심사위원회에 경성 스님, 호법분과위원장 등이 스님, 법규위원회에 천재, 법의 스님을 선출했다.

한편 논란이 돼 왔던 영축총림 방장 추대 동의 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추천 동의의 건은 차기 총회로 이월했다.

남동우·조용수 기자

##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재임

정기중앙총회서 선출

내년 예산 153억8천 승인

태고종 제 23세 총무원장에 운산 스님이 당선됐다.

태고종 중앙총회(의장 인공)는 11월 10일 신촌 봉원사에서 제 91차 정기중앙총회를 열고, 제 23세 총무원장에 단독출마한 운산 스님을 선출(관련 인터뷰 3면)하고, 2006년도 예산 153억8326만3000원을 승인했다. 올해 태고종 총예산 153억여원 중 전승관 건립발사금으로 70억원이 포함됐다. 또 태고종은 이날 총회에서 중앙사정원 원장에 월운 스님

(서울 보문사, 부원장에 청봉 스님(양평 용현사)을 각각 선출했다.

김원우 기자

‘할’

1. 나쁜 원망하지 않는 습관도 행복  
2. 무병도 큰 행복  
3. 좋은 벗도 큰 재산  
4. 열반이 가장 큰 즐거움

그림·조태호

운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타이완 차문화 현장답사 28편 가장 빠른 불교뉴스 buddhanews.com

## 법왕청 오존불 점안 법회 안내



제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초대법왕 일봉 서경보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한 “법왕청 오존불 점안법회”(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및 남북평화통일기원 대법회에 대호 큰 스님을 증명 대 법주로 모시고 점안식에는 무형문화재 9호 혜응큰스님과 각계 대덕스님을 모신 가운데 (제)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에서 오존불 부처님 점안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참석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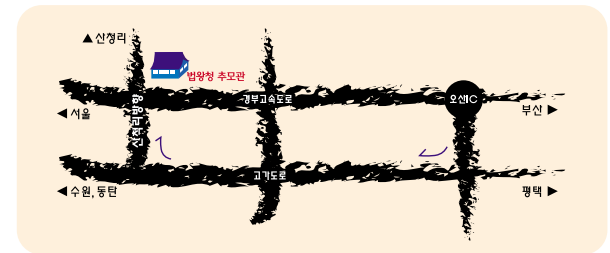
- 행사일시 : 불기2549년 11월 20일(일요일)
- 1부. 방생법회 : 10시 30분(산책자수지)
- 2부. 점안법회 : 오후 1시 30분(법왕청 3층 대법당)
- 3부. 노인위안잔치 및 가수공연 오후 3시30분(법왕청 1층)
- 4부. 점등식 : 오후 6시부터(점등법회)
-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승리 448번지(법왕청)
- 접수처 : 법왕청 031)377-1081 / 재단 02)3216-3216  
총무총정(부산 황정사) 051-861-6645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약사여래불

財團法人 世界佛教法王廳 平和財團  
World Buddhist Supreme Tathagata Followers Peace Foundation, Inc

總務總正 湟井 羅明國  
理事長 曇華 李存榮



참석자 전원 식사제공, 선물증정